

## “학생이 없어요” ... 광주·전남 주요 대학 정원 미달 사태

전남대 사범대 일부 학과 포함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쏠림 심화  
위기의 지역 대학 살릴 대책 시급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음에도 정원을 모집하지 못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발생했다.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와 전남지역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전남대는 총 정원이 4207명인데 4067명이 등록(등록률 96.7%)해 140명이 미달했다. 전남대 본교로 불리는 광주 용봉캠퍼스의 경우 83개 학과 중 사범대학 일부 학과 등 4개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전남대 사범대학 일부 학과 등에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여수캠퍼스는 27개 학과 중 81.4%인 22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조선대는 총 정원이 4350명인데 4222명이 등록(등록률 97.1%)해 128명이 부족했다. 총 76개 학과 중 42.1%인 32개 학과의 정원이 부족했다.

호남대는 총 정원이 1689명인데 1520명이 등록(등록률 90.0%)해 169명을 채우지 못했다. 총 40개 학과 중 절반가량인 18개 학과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광주대 역시 총 정원 1652명 중 1493명이 등록(등록률 90.4%)했다. 동신대는 1550명 모집에 1430명이 등록해 92.3%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전체 모집 학과 41개 중 10개 학과에서 120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들은 충격을 빠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정원 미달 사태가 나자 “우리가 현실이 됐다”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광주 모 대학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를 예견했지만, 이처럼 상당수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모든 대학이 지금 혼돈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방대학은 수도권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대 위기가 빨리 찾아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학령인구 대비 ‘난립하는’ 대학들의 구조조정 등 교육 당국과 학교 당국의 지구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한 대학의 관계자는 “광주지역 주요 대학 실정이 이 정도면 광주·전남 나머지 대학들의 미달 사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난립하는 대학들은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각자도생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호남대, 신입생 온라인 화상 입학식

2021학년도 호남대학교 입학식이 2일 오전 대학내 IT스퀘어관에서 블렌디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이날 입학식은 방역을 위해 마련된 특설무대와 40개 학과 강의실에 마련된 줌(ZOOM)을 연결한 이색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나선다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과 협력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첨단산업

광주시가 서울대와 협력해 미래 첨단산업으로 ‘제2의 반도체’로도 불리는 고(高)자기장 연구시설인 가정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에 나선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함께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양 날개로 삼겠다는 의지다.

<관련 기사 3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자기장 연구는 물리학은 물론 생물학, 화학, 지구과학, 에너지, 생명과학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 방사광 가속기, 중성자 산란 실험 장치와 함께 현대 응집 물질 물리 분야 3대 핵심 연구로 꼽힌다.

이미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과학 선진국에선 국가 주도로 고자기장 연구소를 구축해 기초 과학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국가 대형 연구 시설 구축 지도에 단기간 중점 대형 연구시설로 선정됐지만, 아직 연구원이나 대학 등에 분산돼 관련 기술이 집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은 국내 고자기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있으며 한승용 교수 연구팀은 2019년 미국 고자기장 연구소와 함께 직류 자기장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현재 고자기장 기술을 접목해 사용 중인 자기공명영상(MRI)은 3테슬라(자기장 단위) 수준,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7테슬라 MRI가 승인받았지만 한 교수팀은 45.5테슬라의 자기장을 안전하게 발생시키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2016년 고자기장 연구개발(R&D) 지원과 기반 구축 활성화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해 6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자기 응용과학 연구센터 건립 업무협약, 지난해 7월 자기 응용과학 기술 포럼 개최 등 유지를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자기장 응용 기술은 암 진단용 MRI와 신약 개발용 분석 장비 등 의료 분야, 에너지 저장장치 등 에너지 분야, 전기 추진체 등 수송 분야, 고효율 산업용 기기 등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다”며 “관련 연구를 선진국에 비해 광주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중 서울대 기초전력연구원과 함께 산·학·연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고자기장연구소를 유치하면 AI와 함께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양 날개가 될 수 있다”며 “호남 발전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기초과학 대형 연구 인프라 부족 문제도 일시에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4차 재난지원금 15조원 규모 추경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원), 방역 대책(4조1000억원)을 위한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既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의 패키지 구성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에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쓸쓸히 홀로 떠나는 ‘고독사’ 실태 ▶6면
- KIA 스프링캠프 - 마운드 겁없는 루기들 ▶18면
- 신 전남인 - 함평 ‘우슬장군’ 김민석씨 ▶22면

**변호사 영입인사**      **변호사 개업인사**

저희 법무법인 이우스는 이번 변호사 영입인사를 끝으로 새로운 변호사들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이우스는 상성과 공익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법률문제에 임의를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3. 법무 이우스**

대표변호사    임선숙 강성두  
고    안    오세욱  
변호사    서예민 이병주 고영석  
          김정호 장은백 전민규  
          박석원 김미경

◆ 주요 학력 및 경력 ◆  
• 함남 신안중, 광주실업사고  
• 서울대학교 공학대학 (공학부)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수료  
• GoldenGate University 재직연구원  
• 광주지법 행정지원, 순천지법, 목포지법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행정법원 행정지원  
• 광주지법 부장판사 (민사·행정부, 형사·민사)

대표변호사 김승휘 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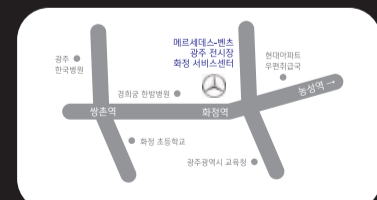
• 영입인사: 2021. 3. 2      • 개업인사: 광주 동구 동명로 99 이우스빌딩  
• 대표전화: 062) 233-1600    팩스: 062) 223-1472



##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황금 서브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삼평대로 1041(마평동)  
메르세데스-벤츠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광평대로 516(수현동)  
호남 서브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이원대로 603(백암 2동5호동)  
수완 서브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대로 520(수완동)

장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220 4 AMG EX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220 4 AMG line (배기량:1950,공차중량:1900, 자동차), 복합연비:13.2도(실연비:12.2, 고속도로연비:14.7),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5  
E 350 4M Av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2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350 4M AMG line (배기량:1991,공차중량:1920, 자동차), 복합연비:10.2도(실연비:9.2, 고속도로연비:11.5), 등급:4, 복합CO2 배출량:171  
E 550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 상기 차량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